



육군 창작뮤지컬 'Stand or Die, 낙동강'에 출연하는 배우 이엘리아, 선예, 육군 재능 병사들이 성공적인 공연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낙동강 방어선 지켜낸 '워커 장군' 뮤지컬로 만난다

육군 'Stand or Die, 낙동강' 순회 공연
내달부터 서울·계룡 등 5곳서 25회
한미 장병 송고한 군인정신 재조명
오디션 선발 재능 병사 35명 등 출연

육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켜낸 미 8군사령관 월턴 워커(육군대장 추서) 장군과 한미 장병들의 헌신을 조명한 창작뮤지컬 '스탠드 오어 다이(Stand or Die), 낙동강'을 다음 달부터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공연은 다음 달 14일 계룡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구 천마아트센터, 평택 한국소리터, 춘천 백령아트센터 등 전국 5곳에서 2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육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국민 소통을 목적으로 창작뮤지컬을 기획·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7번째 작품인 'Stand or Die, 낙동강'에서는 죽음까지 각오하라는 "Stand or Die(버티거나 전사

하거나)" 명령으로 본국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워커 장군의 고뇌와 리더십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여기에 전쟁 속에서도 이어진 이정송 여사와 남편 장우주 육군소령(예비역 소장)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가미했다.

이정송 여사는 극 중 이정화 여사로 등장한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여사의 나이는 23살. 임신 5개월의 몸이었다. 전쟁으로 장 소령과 헤어진 이 여사는 오산을 거쳐 낙동강 다부동까지 300여km를 남하하면서 남편을 찾아 나선다.

생사를 걸고 적중(敵中)을 횡단하던 이 여사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북한군에게 '반동의 아내'로 낙인 찍혀 생명을 위협받고, 북한군의 검문에 발각돼 총살당할 뻔했다. 북한군 복장으로 위장했다가 북한군으로 오인돼 사형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낸 그는 결국 남편과 재회하게 된다.

극본을 담당할 황형근 상병은 "워커 장군

과 한미 장병, 이정송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전장'이라는 죽음과 가까운 절망적인 공간 속에서도 싹뚫던 한미 장병의 전우애와 가족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3월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육군 재능 병사 35명이 배우로 출연한다. 이들은 주로 연극과 뮤지컬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며, 선배들의 군인정신을 재연하겠다는 각오로 굵은 땀을 흘려 왔다.

워커 장군 역을 맡은 김은혁 병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지휘관의 용기를 실감나게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편을 찾아 낙동강을 향해가는 이 여사 역할에는 원더걸스 출신 배우 선예와 이엘리아가 더블 캐스팅 됐다. 선예는 "육군 창작뮤지컬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면서 "한 대사, 노래 하나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배우 이엘리아도 "뮤지컬 무대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 무척 설렌다"며 "이정화라는 인물이 귀하게 표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전문가들도 합류해 예술성을 높

였다. '아이다'의 김재성 예술감독, '라디오스타'의 허수현 음악 슈퍼바이저, '여명의 눈동자'의 변숙희 제작감독, 김수한 안무감독, 이수경 영상감독 등이 참여했다. 참전용사의 손녀라 불리는 캠펠 에이시아도 홍보대사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김재성 예술감독은 "전쟁 속의 실제 인물을 다루는 작품이라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영웅의 군인정신과 사랑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면서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전개로 완성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공연을 기획한 제작TF장 조석근 육군본부 정신전력문화과장(대령)은 "이번 뮤지컬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뮤지컬을 통해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공감대가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미 장병과 참전용사, 보훈단체, 일반 국민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의 송고한 의미를 알리고자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송시연 기자

그때 그 시절, 미디어에 비친 임시정부 모습은?

보훈부, 임정기념관서 특별전
광복 후 역사·활동상 등 담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활동상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특별전에는 광복 후에 기사화되고 제작·출간된 임정 관련 언론보도와 영화, 출판물 등이 전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물결; 파동 매체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2023년 하반기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복 후 임시정부를 다룬 언론보도(1부)와 임시정부를 주제로 제작된 영화(2부), 그리고 출판물(3부) 등 3부로 구성된 이번 특별전은 3개 매체 총 215점의 전시물을 통해 광복 후부터 오늘날까지 각각의 매체들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루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제와 오늘'은 1945년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한국

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까지 보도된 신문 기사와 뉴스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김구 선생이 국민에게 전하는 인사말을 기사화하며 임시정부의 한국 소식을 알린 1945년 12월 2일 자 조선일보 기사를 비롯해 독립신문 사장을 지낸 김승학 씨가 광복 후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한 한국독립사 초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상'에서는 임시정부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주제별로 볼 수 있다.

1주제 '상하이에서 불어온 봄바람'에서는 임시정부 수립과 상하이에서 전개한 활동을 다룬 영화를 소개한다.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을 다룬 전창근 감독의 '삼일독립운동'(1959, 한영영화사) 극본 등도 전시된다. 2주제 '피끓는 청춘 제군들'은 한민애국단 등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의사와 열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날 수 있다. 한민애국단 이덕우와 유진식을 착안해 제작한 영화 '암살'(2015, 최동훈 감독, 케이퍼필름)과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류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3주제 '우리 독립군 풀밭에 잠드니'에서는 1920년대 독립전쟁, 미국에 세운 월로우스 한인비행학교 등 임시정부의 군사 활동을 다룬 영화들로 구성됐다.

마지막 3부 '시대 속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이야기를 담은 출판물들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전시한다. 3부에서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통곡의 미루나무' 등과 같은 현대미술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전시 종료일인 내년 2월 18일까지 기념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채무 기자



1945년 12월 2일 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임시정부 한국 기사. 보훈부 제공